

[JDI 제15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Ⅳ)]

100세 시대 도래와 여가 · 문화분야

토 론 문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강 경 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1.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수지역인 제주도는 199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비율의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1년 12월말 기준 12.6%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 지원의 필요성은 노인질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유케 할 수 있다는데 있음
 - 2011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기존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40.2%)과 건강문제(39.8%)가 가장 많았음.
 -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는 노인일자리 정책과 새로운 문화생활양식 지원을 통해 무위라든가 소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건강수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만큼 급속한 고령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적절한 여가활동은 의료비를 절감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줌과 동시에 노인들의 심리적 만족감으로 사회안정을 꾀하게 만들어 줌.
-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여가문화 요구사항과 현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들은 펴나가야 할지 제안해 보고자 함.

2.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요구 사항

- 그러면 노인들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여가·문화를 향유할까?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지원해야 할까?
-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속적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은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장기간의 노년기를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것인가”보다는 “얼마나 여유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되었으며, 여가와 문화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들의 늘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주요 요소로써 성공적인 여가·문화 영위에 있다고 보여짐. 더불어 건강, 재산, 심리, 여가 등 다원적인 측면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여가문화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관심과 제도가 필요하겠음.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 70대이상 노인들의 희망 여가시간수가 평일7시간 , 주말 8시간인데 비해 현재 여가시간은 3.7시간으로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가비용 또한 7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평균 77,000원으로 희망여가비용은 151,000원인데, 실제 70세 이상 노인의 60.1%가 여가비용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음.
- 여가활동에는 휴식(51.9%)> 사회 및 기타활동(24.8%)>취미오락활동(13.1%)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당시 조사되었던 제주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를 보면 TV시청, 신문잡지 등을 보거나, 가사도움, 집에서 술을 마시며 보내는 단순소일형에 속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3.10/5점만점), 다음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는 대인교류형 여가였음

여가활동유형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단순소일형	436	3.10	0.78
대인교류형	434	2.31	0.77
취미문화활동형	433	1.83	0.71
사회단체활동형	437	1.60	0.75
학습활동형	437	1.35	0.78
전체	432	2.04	0.51

〈표1〉 탐라문화35호/2009, 김진영 김남진

○ 노인들의 여가활동 욕구에 따른 불만족 요인으로는 건강상의 요인과 지식정보의 차단을 들었음

(단위 : 명, %, 점수)

불만족요인/순위	1순위	2순위	평균(순위)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싶지만 건강이 좋지않다	151(34.6)	40(9.3)	0.78(1)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불충분하다	78(17.9)	94(22.0)	0.57(2)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치않다	78(17.9)	67(15.7)	0.51(3)
여가를 즐길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54(12.4)	80(18.7)	0.43(4)
장소나 시설은 있으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않다	20(4.6)	39(9.1)	0.18(5)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중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다	17(3.9)	35(8.2)	0.15(8)
여가활동에 대한 교통편이 불편하다	17(3.9)	41(9.6)	0.17(6)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질이 낮다.		4(0.9)	0.01(9)
기타	21(4.80)	28(6.4)	0.16(7)
계	436(100.0)	428(100.0)	

〈표2〉 탐라문화35호/2009, 김진영 김남진

- 또한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들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운동이나 건강관리가 1순위이고, 여행관광등산 낚시 등이 2순위로 나타났음
- 노인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은
 - ①노인들의 건강상태 점검병행
 - ②비용의 일부부담
 - ③지역별 노인복지시설 개선확충
 - ④노인 여가정보 제공
 - ⑤이동의 편의성 제공 순으로 있음. 이에 따라 향후 100세 시대 도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어르신 여가문화제도

- 이미 우리나라는 한국형 복지 실현 측면에서 헌법¹⁾과 문화예술진흥법²⁾ 등의 법률을 통해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권리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낫설어 하고 있음

1) 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가까운 일본만을 보더라도 사회권적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어 일본 헌법 제2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문화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존권 차원에서의 문화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 있음
- 이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인권선언(1948년)에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까지 21세기 인간으로서의 문화권리에 대한 각국의 문화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소의 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의 근거로 다양한 시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노인들의 문화증진을 위한 바우처, 강연, 강습 등 다양한 노인,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한 편임. 실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예산을 분석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평균이 20.5%인데 비해 제주도는 아직도 17.62%에 불과함.
-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근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인데 현재 도내에는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미흡한 편임.
-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수 설문조사 결과 도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써
 - 도내 경로당은 392개소로(제주시260, 서귀포시 132) 평균 회원가입률은 64.5%에 이르고 있음
 - 마을 마다 거의 하나씩 있으며, 와상노인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이며, 이 경로당을 잘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문화생활양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그러나 경로당 392개소를 전담해야 할 프로그램 관리자는 도내에 총 4명뿐임.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또한 2012년 상반기에만 9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지역자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실적 또한 72개소에 불과함.
 - 경로당 중 92개소(23.8%)가 1개 프로그램을 89개소(23%)가 2개 프로그램을 120개소(31%)가 3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6개소(22.2%)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에서는 경로당 운영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적, 체계적으로 전 경로당

에 걸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노인복지회관은 5개소가 되지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은 제주도에 1개소뿐임.

- 노인복지회관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제주시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제주시서부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은 전문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가문화를 지원한다는 것임.

- 이에 대해 행정에서는 노인복지관을 확대하여 노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 운영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개설 운영되고 있음. 제주시 지역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는 전체 42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32개(8%), 서귀포시의 경우 190개 프로그램 중 13개(7%)에 불과하여 인구수 대비(13%)를 대비해 보더라도 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매우 적게 운영되고 있음

- 앞으로 행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배치할 필요가 있음.

4. 제언

○ 본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노인틀니 및 보청기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음. 이 조례의 취지도 같은 맥락임. 실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한 신체로 어떻게 여가문화를 즐기는가에 있음.

- 가장 기본은 건강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여가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그리고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여가를 어떻게 문화로 대치할 수 있느냐는 것임.
 -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참여 시간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시기를 적절히 고려하는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거점화가 필요함. 복지관을 지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임.

- 한편으로는 노인여가문화 관련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이는 지역별 산재되어 있는 어르신 여가 ■ 문화 관련 시설들과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개발하며 연계 조정, 통제, 더 나아가 노인 여가 ■ 문화관련 중간관리자교육, 일반인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노인여가문화를 홍보하며 수요자 중심의 열린 프로그램, 공동매뉴얼, 세대간, 세대별 프로그램, 제주 독자적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이 필요함.
 -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지원은 의료비 절감과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최대의 정책임.

- 다음은 노인 여가 문화산업의 활성화임. 도내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소외계층 복지측면의 노인여가 문화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함. - 현재까지는 노인여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여건상 노인건강복지에 치중해 있는 상태임.<끝>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IV

(여가 · 문화분야)

강 득 희

((사)한국가족문화원 이사장)

나이들어 감에 대한 막연한 느낌과 생각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발표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고 연계 되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발표자의 원고에 대해 토론이기 보다, 개인으로서, 제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NGO인 (사)한국가족문화원의 대표로서, 주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00세 시대 노인인구로서 이미 발을 들여 놓은 개인의 입장입니다.

저나 주위의 제 친구들은 기존의 노인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노인의 정체성에 막연히 동참하고는 있으나 의식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전문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 남편이 퇴직하여 본격적인 여가, 문화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편이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고 경제력도 받쳐주는 편이지만 문제라면 가족 간이든 친구 간이든, 동호 모임간이든 체계적인 정보 접근과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생산적인 활동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소비 중심의 관광이 아닌 명상투어, 문화 예술투어, 가족치유 투어 등...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인구는 이미 생산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가 문화 활동에 혜택을 주는 바람직한 정책이 우선 필요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보다 많은 노인인구들이 정확한 정보를 들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병행하여 기존의 노인복지 시설 중심 보다는 연령 통합적인 지역 주민센터나 마을 단위의 정보 전달 방식이 활용되면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기존의 시설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가 빈번한 공간 활용을 권장합니다.

둘째,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 곳 중심으로 활동하다 제주가 좋아서 8년전 이곳으로

이사 온 제주도민의 입장입니다.

제주도라는 장소 자체가 생태환경과 여가, 문화 예술과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편입니다.

일상생활의 환경 자체가 생산활동과 여가활동을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몇몇 뜻이 맞는 이들과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며 “삶의 예술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제주 노인 분들에게 얼마나 특혜를 받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만 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산적 여가 문화활동을 통해 100세 시대의 모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역 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에는 생산노동에 대한 건전한 의식이 높아 오히려 너무 일중독인 노인들이 문제가 될 정도인 셈입니다. 이를 물질적 부만을 위한 생산활동이 아닌 더불어 잘사는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한 생산활동인 자원봉사나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이동하기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역공동체 의식이 파괴되지 않았고 “웬당 하나됨”의 인식이 크기 때문에 “배타적인 하나됨“이 아닌 ”포용적인 하나됨“의 의식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NGO인 (사)한국가족문화원의 대표로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제주사회의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입장입니다.

저희 단체는 서울과 진해, 제주 세곳의 지부를 갖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로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노령화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만 집중하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행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나의 통합된 행복 가족의 이슈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 여가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매달 예술의 전당에서 각각 한번씩 이루어지는 목요일영상모임, 월요일 클래식 음악감상모임, 양평 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양평영화모임이 있습니다. 가족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 여성학자, 예술사회학자 등이 전문적으로 이끄는 모임에 매번 최소 10명에서 25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모여 윤택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곳 회원들이 단체의 통제 없이 걷기 동호회를 조직하여 매주 시간이 허락되는 이틀끼리 만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서 저는 여가, 문화 분야의 정책 수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이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주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의 입장을 정리하

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 만의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간 활용도 기존의 노인센터나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에서, 시에서 적극 지원해주신다면 다양한 방식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공간들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음으로 제주지역도 대상이 됐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제주미래 포럼을 계기로 독자적인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주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지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사회에 입도한 특혜를 개인적으로 누리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주사회에 되돌려 드려야 할 기회가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알고, 배웠으니 그동안 제가 그리고 저희 단체가 개발해온 경험과 지혜를 수렴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제주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 여가·문화분야 토론문

김 봉 현
(제주의소리 기자)

* 100세 시대 '장수의 섬' 제주, '노풍당당' 제주가 되려면?

-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이른바 '백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백세 시대의 최대 고민은 남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화두다.

결론은 노인들의 갖는 풍부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백세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시혜 받는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단순한 시혜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노는 것도 알아야 논다. 주말에도 사무실로 출근하는 30~40대 직장인들은 능률도 떨어지고 사명감도 대체로 부족하다.

- 인생 2막이 더 중요하다. 스포츠에서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4계절에 비유할 때 유아기~청소년기를 봄이라 하고, 청년기를 여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곡식이 여물고 결실을 거두는 가을과, 아름다운 회향을 준비하는 겨울이 봄·여름 못지않게 중요한 계절이다. 인생의 가을.겨울과 같은 50대 이후 '은퇴 후'의 삶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

- 따라서 노인들의 과거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문화를 보급해야 한다. 기존에 활성화돼있는 노인시설을 여가 중심의 공간으로 꾸며 노인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 20대엔 학습, 30~40대엔 일, 60대엔 여가 이런 식의 구분에서 탈피해 모든 경험

을 전 생애에 걸쳐 공유하는 새관짜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노인인구의 비중이 15%를 넘어서면 노인들이 문화소비의 주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래야 장수의 섬 제주가 진정한 ‘노풍당당’ 제주가 된다.

장수화시대,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김 순 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평균수명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에 근접해보려는 것이 이 ‘미래포럼’의 목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물질적 복지, 신체적 복지, 문화적 복지, 크게 3종으로 나뉜다. 물질적 복지란 그야말로 궁핍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기초생활 연금은 지급하는 등이고, 신체적 복지는 장애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를 말한다. 이 두 복지가 삶의 필요조건이라면 문화적 복지는 정신적 차원의 복지로 혼자만의 복지라기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수준을 높여주는 복지라 할 수 있다.

문화복지는 또한 장수화 시대를 맞아 젊은 시절을 정신없이 인생의 행복도 채 못보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가 노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채울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복지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장수의 섬이다. 알려졌다듯이 65세~90세의 노령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수노인들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문화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종목을 알아보았다. 이런 문화활동을 통해 장수노인들의 지속가능한 문화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

1. 각종 해설사 참여

문화유산 해설사, 자연유산 해설사, 숲 해설사, 올레 안내사, 박물관 해설사 등. 이들은 일정 기간 관계기관에서 강의와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고학력, 고위직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문화활동이다. 자원봉사 형태로 하면서 점심값 정도는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봉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시간, 자기 재능, 자기 돈을 내고 활동함으로써 정신적 문화적 만족을 얻는 방법이다.

2. 부부 함께 오름등산, 동호인 모임을 통한 취미활동: 서예, 문학, 배드민턴, 올레전 코스 걷기, 자전거로 도일주 하기 등.

오름을 좋아하는 모임에 가입하여 등산하고 대화도 나누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친분 관계를 맺고 친목을 다지는 활동. 부부가 함께 할 때 더욱 만족도가 높다.

3. 동사무소 문화의 집 무료강좌 참여

각 동사무소에서는 일년에 2회~4회까지 여러 가지 무료강좌를 열어 주민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있다. 이곳에서 기본을 익히면서 흥미와 취미가 생기면 더 고급 수준의 강좌를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소가 동사무소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교통 편리함이 있다. 노인들의 의식개선 및 취미생활을 도와줄 강좌를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

4. 마을회관의 경로당

경로당에는 에어컨, 보일러 등 난방시설이 돼 있고 싱크대, 찬장, 가스렌지, 냉장고 등이 기본 생활용구가 구비돼 있다. 실내 운동기구들이 시설돼 있고, 체중계, 혈압측정기, 전기안마기 같은 건강체크 용품들이 비치돼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을 대형 친구들과 TV를 시청하는 곳,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내의 모 경로당은 공무원 고위퇴직자나 교육계 고위직 퇴직자들이 점령하다시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래야 할 수 없게 왕따를 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도시의 경로당일수록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 등 불우한 처지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노인세대의 재교육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 현대의 문화 발전에 따른 노인세대의 의식과 젊은 세대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누가 나를 ‘노인’이라 하는가?

김 호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3%에 해당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2012. 9. 16일 발표한 ‘2012 세계보건통계’에서 한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평균 80.1세이며 남성은 76.5세, 여성은 83.3세이다. 제주도는 2010년 노인인구 비율은 12.6%이며, 기대수명(2011년 통계청 조사)은 남성 77.2년, 여성 84.1년으로 전국평균보다 노인인구비율 및 기대수명 모두 높은 편이다. 아울러 최근 (2012.10.6)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박형근 교수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주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만1천490명으로 전체 인구(56만9천433명)의 21.3%, 2030년 26.0%, 2035년 30.6%, 2040년 35.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노인 삶과 시간에 대한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 보다 민감한 정책 화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100세 시대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대상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일까?

정부가 발표한 성균관대 하이브리드걸치 연구소의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9.38세이고, 2010.12월 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1836명으로 2005년 875명에 비해 2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영국에서는 20세기 초 매년 평균 74명이 100세에 도달했지만 20세기 말이 되면서 그 수가 3000명에 달하고 일본에서는 1997년에 8500명으로 늘었다. 세계적으로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으며, 이것은 노인들의 시간의 활용 여부가 국가 및 세계 생산력 등과 직결될 것을 예감한다. 실제, 국가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20-60세까지의 40년 동안 노동, 통근, 잔업시간을 더한 평균 노동시간이 약 9만 시간이며 정년퇴직 후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일 평균 12시간의 여가시간을 합하면 1년에 약 4,500시간, 40년이면 약 18만 시간의 여가시간이 발생한다. 생산 활동에 참여한 40년 동안의 노동시간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2040년 앞으로 30년 이후에 인구의 전체 제주인구의 35%에 해당하는 노인인구가 ‘여가’만을 즐긴다면 제주지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 나이에 무슨...’ 노인들의

한탄처럼 그리고 ‘노인도 정말 인간인가? 우리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노년은 부끄러운 비밀, 금기시된 주제이다’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처럼 노인은 과연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잉여분인가?

‘앞으로 어떻게...?’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는 사회적 재앙이거나 새로운 개념의 (신)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테너 플라시오 도밍고의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쉬면 늙는다, 젊은 마음은 강한 마음 (healty mind)이다’는 말처럼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100세 시대하면 남은 시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여가정책을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준비되고 설계된 노인들의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노새처럼 일한 불쌍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여가정책의 지향하는 바와 차이가 있고 노인일자리 정책과 다소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탐구해야 되는 부분은 노인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설계차원에서 접근이다. 즉 미래적인 관점에서 온전하게 사회가 진전되기 위해서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 가?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여가정책에 던질 정책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

‘100세 시대=노인의 여가시대’가 아니라 태어나 8-24,5세까지 학업, 26-60세까지 가사/노동, 60세 이후 할 일 없어 노는 노인세대라는 지금까지의 인생 공식을 벗어난 다른 인생 공식을 살아갈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정의와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 역시 현재의 노인들의 ‘시간 보내기’, 물론 생산적 여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여가에만 집중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26-60세의 가사/노동시기에 제2의 사회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병행, 60-80세의 활동기를 가질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논의되었으면 한다. 특히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참여 정도와 분야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여가정책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스스로 60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보다 많이 개발/추진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60세 이후보다는 그 전 세대인 40-50세에 대한 다양한 학습/여가정책을 개발하여 60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 (문화)복지 정책

이 규 봉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 과장)

2015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게 된다고 한다.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감소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핵폭발보다 무섭다는 인구 감소의 재앙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18년 4,934만명이던 인구는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2030년 4863만명, 2050년 423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154년 정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장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세인'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12년 1월 현재 7만2000여명으로, 전체 제주도 인구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은 20.1%인 1만4000여명에 이른다.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은 17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0여명에 비해 20여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체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지난해 '제2차 저출산·고령화 중기플랜'을 수립한바 있으며,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0개 과제 3,152억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령화 분야는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 노령연금 급여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고령자 배려 보행환경개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등 31개 과제에 1,037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복지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이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소의

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 ‘사랑티켓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정책방향으로는 지금까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에서 도민이 모두가 문화생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촘촘한 문화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인 1예() 활동하기, 문화봉사와 나눔운동 활성화, 노인 사회참여 및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및 ‘실버 멘토제’ 운영,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적극적 노인문화 증진방안 강구를 위해 문화원, 복지관을 중심으로 ‘실버창작문화센터’ 개설, ‘노인 문화주간’ 제정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금년도에 수립하는 ‘제주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제주가 장수의 섬이 되는 것은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노인복지사업과 발맞추어 노인세대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의 변화를 추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어르신들이 먼저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화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나이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삶의 경험자로서의 노인

전은자

(이중섭 미술관 큐레이터)

흔히 현시대를 고령화 사회라는 말로 규정한다. 즉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이렇다보니 사회의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개념 틀로서는 미래의 안정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빨리 변화하는 시대가 현재라면, 미래의 복지 전략은 미래적 관점 하에 오늘을 바라 봐야 한다.

먼저 미래를 위한 노인의 개념, 명칭, 연령 규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노인이라고 하면 흔히 60세 이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과연 100세 시대에도 60세가 고령인가? 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하며, 현재 노인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층을 위해서 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노인층에 대한 직업, 학력, 취미, 특기 등을 분석하여 노인이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노인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분야별 전문가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럴 때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진정한 자원봉사가 될 것이다.

전국의 시설 중에 특이한 것은 노인회관, 경로당 등 노인 관련 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시설에서 노인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화투를 친다. 이것을 되짚어보면 이런 시설로 인해 노인들끼리만 노는 문화를 형성케 하여 오히려 노인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그런 경로시설에 가는 사람 중 유독 보이지 않는 노인은 고학력, 전문직의 노인들이다. 어떻게 보면 경로 시설은 서민층의 노인들의 특별한 장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또 많은 노인 회관들이 방치된 경우도 있다. 이는 노인회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본 토론자는 노인시설을 따로 두고 그곳에서 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마다 노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깨우친 삶의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60세가 돼 노인으로 분류돼 경로시설에 배우러 다니기보다는 사회성원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치 옛날 우리 농촌사회에서의 대가족 공동체에서의 어른처럼 말이다.

노인들이 노인 회관에서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문화)을 차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대학이 노인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보다는 노인들의 경험을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 주민, 연구자, 학자,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문화를 배워주는 노인주체의 노인대학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평생 낚시를 해온 노인에게서 낚시법을 배우고, 감귤 재배를 잘하는 노인에게 영농법을,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노인에게 요리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인에게는 이론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중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 노인들이 터득한 지혜를 공개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역할은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노인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있는 박물관이 아닌가.

노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취미 모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그들이 선호하는 취향을 찾게 하여 질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일례로 이중섭 미술관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중에 지인으로 구성된 노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외국미술관 등을 돌아보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이들은 미술관 견학 모임을 만들어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취미, 취향 조직을 지원해주는 것이면 더욱 좋겠다.

노인들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노인이 돼 일생에 꿈꾸던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가 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 알기 쉬운 강좌 수강 후에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노인들 중에 화가 출신이 있으면 자체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임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어촌에서는 노인들에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분야별 직업 경험을 교육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이제 노인이라는 용어는 조심하게 사용해야 한다. 젊은이와 노인이라는 분류보다는 노인을 삶의 경험자인 세대로, 그 세대의 경험을 어떻게 후세대에게 줄 수 있는가를 프로그래밍하는 고민이 필요하다.